

긴 만남을 위한 짧은 편지

당신은 잘 지내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재택 교육이 계속 길어지네요. 겨우 2주 못 본 건데, 벌써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한 달만을 같이 지냈는데도, 더 오래 보면서 지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당신도 그런가요?

저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드문드문 예전에 썼던 코드들을 보고, 보통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써요.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지낼까, 생각하면 저만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유를 가지려고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한 삶이 처음이라, 따스한 일상을 더 누리고 싶거든요.

얼마 전 까지도 말예요, 여유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보통 바쁜 게 아니었어요. 대학생으로 살면서 시간을 쪼개 가게 직원으로도, 초보 강사로도 살았어요. 틈틈히 시간을 내어 스터디며 모임이며 돌아다녔고, 한 톨 남는 여유는 나중을 위해서라며 두터운 전공책 사이에 담아 뒀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르게 묻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아한 테크코스에 지원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다들 대외활동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한 편으로는 뭔가 전공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프리코스 과제를 겨우 냈고, 학기가 끝난 뒤에 일을 하다가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도 일에 미뤄두는 건 슬펐지만,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짧은 기쁨이 좋았죠.

어쩌면 안도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표현이 이상한가요? 주변에는 학교도 쉬고 즐겁게 공부하다 오겠다고 해뒀는데, 스스로는 그 말을 믿지 못했거든요. 이제 온전히 프로그래밍 학습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니, 할 게 또 얼마나 많아 보이는 지 눈앞이 막막했어요. 미리 CSS 기초 강의를 들어볼까? 자바를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자바스크립트라도 공부하면 가서 도움이 될까? 갈팡질팡 고민만 이어져서, 아무 것도 안하면서 답답함이 마음에 가득 쌓였어요.

이런 고민과 답답함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미궁을 날아나듯 매듭을 끊어내듯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기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요? 아마도 당신은, 왜 닉네임을 카프카로 지었는지 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작가 이름이라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져다 지었다고 했겠죠?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을 쓰다가 일찍 죽었대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제야 사람들은 카프카의 소설을 읽었다고 해요.

카프카의 소설을 해석한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야기도 재미있고, 카뮈라는 작가가 주장한 인간의 실존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도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비유를 찾아 해석하기도 하고, 유대인이었던 카프카가 자기 정체성을 소설 속에 녹여냈다고도 주장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카프카는 그저 미완의 작가일 뿐이에요.

카프카의 소설 속 상황들은 비논리적이고, 인물들은 두서없이 행동해요. 게다가 우리가 읽는 카프카의 장편 소설들은, 카프카가 죽은 후 친구 막스 브로트가 찾아서 발표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말이 없거나 어설픈 작품들이 많아요. 어쩌면 카프카는, 그저 6권의 조그만 단편집을 남기고 병사病死한 젊은 작가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카프카를 무시하거나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카프카의 작품은 부족해서 저에게 더 와 닿으니까요. 작품들의 그 단하지 않음, 열려있는 미완성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카프카의 작품을 읽다 보면, 때때로 저는 작품의 빈 칸에, 미완의 결말에 저를 비춰 넣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듣고, 품고 있던 고민을 작품을 통해서 읽어요. 그래서 카프카에 대한 해석이 많은가봐요. 모두가 자기 관심에 대해 말할 뿐이고, 카프카는 그걸 되돌려 줄 뿐인

거죠.

모두가 각자의 카프카론을 내놓기 때문에, 카프카는 영원히 젊은 작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왜 카프카라는 닉네임을 썼는지, 그때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닉네임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정해두고 싶었어요. 스스로 미완의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그 비어있는 혹은 열려있는 부분을 채우면서 계속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여유 없는 삶을 살았던 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져서라고 생각해요. 학점 좋은 대학생, 뛰어난 프로그래머, 남는 시간도 쪼개서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잔뜩 쌓아둘수록, 나라는 사람은 한없이 부족해졌어요. 늘 위축되고, 그래서 더 초조하지만 아무것도 쉽사리 바뀌지 않았죠. 그저 강박일 뿐 꿈이나 목표라는 말도 과했을지 몰라요.

우아한 테크코스에 와서,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가 아니라 단지 재미있고 신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당신을 포함해서요. 당신이 새로 짠 코드를 저에게 자랑한 게 기억나요. 당신이 코드리뷰를 받고 저에게 고칠 부분을 물었던 게 기억나요. 좋은 방법을 추천받고 당신이 뒤통 기뻐했던 게 기억나요. 당신에게 나도 그랬을까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랬으리라 믿고 싶어요.

테크코스에서의 한 달은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공부할 내용도 많고 늘 바빴는데, 마음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했어요. 지는 노을로 수평선水平線이 붉게 스며들 듯, 하루가 끝나고 집에 갈 적엔 마음에 노곤한 행복이 스몄어요. 이제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잊었으니까, 그보다 무엇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강박을 줄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뀌었기에, 지금 잠시간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제 며칠 뒤면 교육장에서 다시 보겠네요. 당신도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당신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읽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며칠 전엔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도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도 슷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 버리는 것이다.

편지를 쓰려면 길게 고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금방 두 장을 넘겨 놀랐어요.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글이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일까요? 쉽게 글을 쓴 것은, 초조하고 번잡한 삶을 지나왔지만 이제야 슬프지 않아서겠지요. 주린 듯 씹어 넘겨온 삶도 일생의 한 장이라, 지울 수 없기에 때로 돌아보며 우울하곤 해요. 하지만 아직 완전치는 않아도, 열려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에서 연유하여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글은, 이제 기쁘기보다 느긋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짧은 글을 마칠게요. 우리는 길게 만나야 하니까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카프카.

글을 마치며 : 참조 그리고 리뷰어에게 드리는 변명

- 제목은 페터 한트케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를 모티브로 하였다.

- 첫 섹션의 "미궁을 날아나뒸 매듭을 끊어내뒸"은 다이달로스와 고르디우스의 이야기를 참조한 인용이다. 오독할 수는 있겠으나 마음이 가 고집하였다.
- 기본적인 포맷은 김영하의 <오직 두 사람>, 김애란의 <서른>에서 빌려왔다. 편지는 다정한 말들, 어쩌면 글과 말 사이에서 머무는 딱딱하지도 부드러우지도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믿었다. 참고한 두 책은 모두 친한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여성 화자를 가정하였는데, 나 역시 비슷한 상황을 상상하여 글을 썼다. 한 호흡에 써내리면 자연스럽겠지 했으나 아무리 고쳐도 부족함이 많다.
- 카프카에 대한 내용은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의 <카프카 : 변신의 고통>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비평과 관련된 내용은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변신, 시골의사>를 참조하였다.
- 중간의 인용문은 피천득의 <인연>에 수록된 <수필>이라는 작품의 인용이다.
- 오독될 수 있는 단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유일하게 한자만으로 단어를 쓴 부분이 있는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한 오마주이다.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이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없는 한문같은 외국어같은 말이라고 종종 생각한다.